

노인의 성 지식과 태도 및 교육요구

한 혜 자* · 김 남 초** · 지 성 애***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1960년에 52.4세에 불과하던 전 국민의 평균수명이 1980년에는 65.8세, 1995년에는 73.5세, 2000년에는 74.9세를 거쳐 2020년에는 78.1세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전체인구의 7.6%인 약 358만 명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고 향후 20년 내에 15%를 넘어서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 Welfare, 2002).

노인의 삶의 질을 언급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노인의 성 문제이다. 성은 인간의 종족유지에 필수적이며 개인의 정서와 안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기본 욕구이기 때문이다. 성적인 행위는 생물학적, 심리적인 요인에 의존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점차 이에 대한 흥미와 능력이 저하될 수는 있으나(Drench & Losse, 1996) 성에 대한 관심과 활동은 노화과정에서 동반하는 신체, 심리변화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인 사회의 경향은 노인을 여성도 남성도 아닌 무성(無性)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노인의 성에 대해서는 주책스럽고 망척하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여전히 지배적일 뿐 아니라(Hillman & Sriker, 1994) 일부 노인들은 그들 자신도 이러한 믿음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이다(Falk, 1980). 이는 성의 개념을 단순한 쾌락으로서 은밀하고 감추어진 내면의 본색 정도이며 종종 젊음 위주의 것으로 간주해 버리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 때문일 것이다.

성(sexuality)이란 단순히 성교라는 좁은 의미에서 벗어나 만족, 친밀감, 즐거움과 따뜻함을 의미하는 폭넓은 개념으로(Barber, 1996) 여성과 남성의 생식적인 요소로 특징지어지며 개인의 성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구성된다. 인간은 음식물, 배설, 안전에 대한 욕구충족이 되면 이어서 소속감과 사랑 받고 싶은 욕구가 뒤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욕구는 노인이 되어도 변화하지 않으며 노화에 따른 신체적인 요인으로는 성적인 활동을 중단할 근거가 없다(Drench & Losse, 1996). 오히려 노인의 성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관습과 분위기, 그리고 노인 자신들의 성에 대한 지식부족과 부정적인 태도 및 성적 욕구에 대한 부적절한 대처방법 같은 요인들(Oh & Shin, 1998) 때문에 노인에서 성적인 행동이 활발하지

* 신성대학 간호과 조교수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투고일 2002년 7월 31일 심사회의일 2002년 8월 2일 심사완료일 2002년 10월 16일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질적으로 성이란 정신-사회적, 사회-문화적, 신체적 차원을 모두 포괄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라는 점에서 노인이라고 결코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간호학문 분야에서는 몇 편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1990년대 들어 비로서 노인의 성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이 모아지기 시작했지만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노인의 성 관련 연구는 주로 노인의 성에 대한 중요성과 노화에 따른 성 기능의 변화 그리고 성생활의 빈도나 만족도 등에 관심을 두었을 뿐(Drench & Losee, 1966; Falk, 1980; Johnson, 1997; Steinke, 1997; Tunstall & Henry, 1996) 노인들이 가지는 자신 스스로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교육 요구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더 제한적이었다.

그러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를 감한 할 때 이들의 삶 전반에 걸쳐 질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간호중재가 요구되며 또한 간호 대상자에게 전인적인 간호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과연 노인들은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지, 어떠한 태도를 지니는지 그리고 실제 어느 정도 성에 관한 교육적인 요구가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부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교육요구를 확인하여 추후 노인의 성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얻는데 있으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노인의 성에 대한 지식수준을 파악한다.
- 2) 노인의 성에 대한 태도를 파악한다.
- 3) 노인의 성에 대한 교육요구를 파악한다.
- 4) 노인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 지식, 태도 및 교육요구의 차이를 파악한다.
- 5) 노인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요구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노인들이 성에 대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

지고 있으며 어떤 태도를 보이고 또한 어느 정도의 교육적인 요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서술적인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2002년 2월부터 4월 사이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5개 노인대학 또는 노인학교에 재학중인 남녀 노인 35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은 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읽고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한글 해독이 어려운 노인들은 연구조원이 직접 설문지를 한 문항씩 읽어주고 응답한 내용을 기록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연구조원은 학교에서 노인간호학을 학습한 경험이 있는 간호학생 5명으로서 연구자들로 부터 노인에 대한 응대법과 질문지 조사요령 등을 훈련받았다.

3. 연구도구

1) 성 지식과 태도

본 연구의 도구는 White(1982)에 의해 개발된 노인의 성 관련 지식과 태도척도를 Quinn-Krach와 Van Hoozer(1988)가 수정한 도구를 번역한 후 현재 대학에서 노인간호학을 강의하고 있는 교수와 다년간 노인대학에서 노인의 건강문제를 강의하고 있는 교수 3명이 원래의 도구대로 의미전달이 잘 되었는가를 검토하였다. 이를 다시 10명의 노인들에게 예비조사하여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맞지 않은 내용이나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 그리고 중복의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삭제하였다. 그리하여 최종 선택된 문항은 지식측정 29문항, 태도측정 8문항이었다. 지식측정 문항은 예, 아니오, 모른다고 구분되어 있고 정답에는 1점, 오답과 모른다면 0점을 주었다. 점수의 범위는 0점- 29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태도측정 문항은 5점 척도로 절대 그렇지 않다 1점, 정말 그렇다에 5점을 주었으며 점수의 범위는 8점- 40점까지이고 점수가 낮을수록 허용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이 중 1문항은 역산 처리하였다. 지식측정 도구와 태도측정 도구의 Cronbach's alpha coefficient는 각각 .8911, .7004였다.

2) 교육 요구

노인의 성에 대한 교육요구 측정문항은 연구자들이 관

전문헌 고찰과 남녀노인 3명으로부터 개방형 질문을 통해 얻은 탐색적 결과들을 종합하여 개발하였다. 노화로 인해 나타나는 생식기관련 기능적, 심리적 변화, 약물과 건강, 배우자의 상실이 성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구성된 총 10문항이다. 전혀 알고 싶지 않다 1점, 꼭 알고 싶다 에 5점을 주었고 점수의 범위는 10점-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요구가 큼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coefficient는 .8938이었다.

4. 자료분석 방법

자료는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노인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교육요구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과 태도, 교육요구의 차이는 t-test, F-test 및 Scheffe' test를 하였고 지식, 태도, 교육요구와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사용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70세 이하가 39.3%로 가장 많았고 75세 이상 31.1%, 70- 75세 미만 29.7% 이었으며 평균 71.4± 5.8세였다. 성별은 남녀 각각 50%였으며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학력이 45.8%이었다. 대상자의 72.9%가 종교를 가지고 있었으며 불교 30.2%, 기독교 23.7%, 천주교 12.1%의 순이었다. 대상자의 54.8%에서 배우자가 생존해 있었고 5명 이상의 자녀를 둔 대상자가 54.8%였다. 대상자의 54%에서 자신의 건강상태를 건강한 편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배우자의 경우는 30.3%에서 건강한 편이라고 인지하고 있었다. 부부생활 빈도는 55.6%에서 해당 사항이 없었고 19.8%가 전혀 하지 않는다고 답해 75.4%가 부부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 그 빈도는 평균 주2회에서 월 2회 사이였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금슬 정도는 대상자의 45.5%에서 좋은 편이라고 응답했으며 성생활에 대한 욕구는 그저 그렇다 43.5%, 없는 편이다 37.5%, 강한 편이다 19%로 나타났다.

2. 대상자의 성에 대한 지식 수준

대상자의 성에 대한 지식수준은 29점 만점에 평균 12.84± 5.46점(최소 0- 최대 26점)으로서 중간 이하의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편이었다. 항목별로는 '남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성생활의 회수가 뜸해진다(0.62±0.49)', '65세 이상의 여자노인은 젊은 여자보다 질의 분비물이 적어진다(0.61±0.49)', '65세 이상의 나이가 되면 성적인 반응이 늦어지게 된다(0.60±0.49)' 등의 항목 순으로 지식수준이 높았다. 한편 지식수준이 가장 낮았던 항목은 '너무 심한 자위행위는 노인에게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0.19±0.39)', '대부분의 여자노인은 성적으로 둔하다(0.25±0.43)', '65세 이상 노인의 성행위는 심장마비의 위험을 증가시킨다(0.26±0.44)' 등이었다<Table 1>. 한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성 지식의 수준을 보면 70세 미만의 군이 75세 이상 군보다(F=4.17, p= .0162), 남자 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t=2.75 p= .0063),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군이 사별한 군보다(F=4.20, p= .0062), 건강상태가 건강한 편인 군이 건강하지 못한 군보다(F=3.14, p= .0149), 배우자와의 금슬이 매우 좋은 군이 그저 그런 군과 해당 사항 없는 군에 비해, 그리고 좋은 편인 군이 해당 사항 없는 군에 비해(F=5.25, p= .0001), 성생활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강한 군이 거의 없는 군과 전혀 없는 군에 비해(F=4.97, p= .0007) 지식수준이 더 높았다. 또한 교육수준에 따라서도 지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2.57, p= .0265) 다중비교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3. 대상자의 성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성에 대한 태도 점수는 평균 20.60± 4.79 점(최소 10-최대 33점)으로 거의 중간수준으로서 허용적인 태도도 부정적인 태도도 아닌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다. 항목별로는 '노인을 위해 실시하는 성교육 과정이 있다면 내가 참여하여 지원할 수 있겠다(2.18±0.68)', '65세 이상의 노인은 성에 대해 관심이 없다(2.36±0.99)'등의 항목에서 보다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고 반면 '부부 이외의 어떠한 성 관계도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3.19±1.20)',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면 성에 관한 관심이 줄어들다(2.95±1.09)' 등의 항목에서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Table 3>. 한편 대상자의 일반적 특

<Table 1> The mean scores of knowledge regarding Sexuality

ITEM	Mean±SD
Sexual activity in aged persons is often dangerous to their health.	0.43±0.50
Males over the age of 65 typically take longer to attain an erection of their penis than do younger males.	0.58±0.49
The firmness of erection in aged males is often less than that of younger persons.	0.58±0.49
The older female(65+ years of age) has reduced vaginal lubrication secretion relative to younger females.	0.61±0.49
The older female may experience painful intercourse due to reduced elasticity of the vagina and reduced vaginal lubrication.	0.51±0.50
Sexuality is typically a life-long need.	0.50±0.50
Sexual behavior in older people(65+) increase the risk of heart attack.	0.26±0.44
Most males over the age of 65 are unable to engage in sexual intercourse.	0.47±0.50
Sexual activity may be physically beneficial to older persons.	0.32±0.47
Sexual activity may be psychologically beneficial to older persons.	0.40±0.49
Most older females are sexually unresponsive.	0.25±0.43
Prescription drugs may alter a person's sex drive.	0.51±0.50
The sexual response reduce with age in males over 65.	0.60±0.49
Older males experience a reduced need to ejaculate and hence may maintain an erection of the penis for a longer time than younger males.	0.47±0.50
Older mals and females cannot act as sex.	0.47±0.50
The most common determinant of the frequency of sexual activity in older couples is the interestnof the husband in a sexual relationship with his wife.	0.51±0.50
Barbiturates, tranquilizers and alcohol may lower the sexuality of aged persons and interfere with sexual satisfaction.	0.41±0.49
Sexual disinterest in aged persons may be a reflection of a psychological state of depression.	0.46±0.50
There is a decrease in frequency of sexual activity with older age in males.	0.62±0.49
There is a greater decrease in male sexuality with age than there is in female sexuality.	0.33±0.47
Heavy consumption of cigarettes may diminish sexual desire.	0.54±0.50
An important factor in the maintenance of sexual responsiveness in the aging male is the consistency of sexual activity throughout his life.	0.42±0.49
Fear of the inability to perform sexually may bring about an inability to perform sexually in older males.	0.50±0.50
The ending of sexual activity in old age is most likely and primarily due to social and psychological causes rather than physical causes.	0.38±0.49
Excessive masturbation may bring about an early onset of mental confusion.	0.19±0.39
There is an inevitable loss of sexual satisfaction in menopausal woman.	0.32±0.47
Impotence increases in males over the age of 60.	0.53±0.50
In the absence of severe physical disability, males and females may maintain sexual interest and activity well into their 80's and 90's.	0.50±0.50
Masturbation in older males and females has beneficial effects on the maintenance of sexual responsiveness.	0.36±0.48
total	12.84±5.46

성에 따라서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t=2.29$, $p=.0227$),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매우 건강한 군이 그저 그런 군과 해당 사항 없는 군에 비해($F=4.36$, $p=.0007$), 부부생활 가끔 하는 군이 전혀 하지 않는 군과 해당사항 없는 군이 전혀 하지 않는 군에 비해($F=9.83$, $p=.0001$), 배우자와의 금슬이 매우 좋은 군이 좋은 편, 그저 그런 편, 해당사항 없는 군에 비해($F=$

5.17 , $p=.0001$), 성생활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한 군이 그저 그런 군,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군에 비해, 비교적 강한 군이 그저 그렇거나 거의 없는 군에 비해($F=12.68$, $p=.0001$) 성에 대해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건강상태에 따라서도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F=2.44$, $p=.0467$) 다중비교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Table 2> Sexual knowledges, attitudes and educational needs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354)

General characteristics	N(%)	knowledge Mean±SD	t or F	p	attitude Mean±SD	t or F	p	need Mean±SD	t or F	p
Age(years)										
~<70	139(39.2)	13.64±5.22a			20.86±4.64			32.35±7.13		
70≤~<75	105(29.7)	13.02±5.20	4.17	0.0162	20.40±5.11	0.34	0.7123	31.67±7.59	1.44	0.2382
75≤~	110(31.1)	11.66±5.84a			20.45±4.69			30.76±7.23		
Sex										
Male	177(50.0)	13.63±5.34			20.02±4.48			33.13±6.87		
Female	177(50.0)	12.05±5.49	2.75	0.0063	21.18±5.03	2.29	0.0227	30.18±7.46	3.88	0.0001
Educational level										
illiterate	138(39.0)	12.07±5.18			20.86±4.52			30.43±6.70		
elementary	162(45.8)	12.89±5.71			20.66±5.14			32.06±7.87		
middle school	36(10.2)	14.22±5.19	2.57	0.0265	19.97±4.19	0.58	0.7157	33.33±6.28	1.82	0.1087
high school	9(2.5)	17.33±4.27			18.89±4.86			35.56±5.36		
college	4(1.1)	16.00±6.06			20.50±5.32			32.25±13.52		
others	5(1.4)	12.20±3.03			18.80±4.55			32.80±5.17		
Religion										
none	96(27.2)	12.30±5.13			21.01±4.59			32.32±6.30		
protestant	84(23.7)	12.86±5.08			20.54±4.74			29.82±7.80		
catholic	43(12.1)	12.70±6.02	0.60	0.7027	21.12±4.61	2.13	0.0616	32.56±7.33	2.92	0.0136
buddhist	107(30.3)	13.51±5.69			20.52±4.91			31.48±6.88		
confucian	9(2.5)	11.78±5.67			15.78±5.36			38.22±7.74		
others	15(4.2)	12.47±6.52			20.20±4.77			32.33±10.49		
Marital status										
married	194(54.7)	13.66±5.20a			20.39±4.53			33.19±7.34ab		
widowed	128(36.2)	11.66±5.55a			21.16±4.87			29.87±6.63a		
divorce or separate	24(6.8)	13.33±5.92	4.20	0.0062	20.54±5.36	2.34	0.0727	30.67±7.03	7.62	0.0001
other	8(2.3)	10.38±5.60			16.88±6.56			25.88±9.31b		
Numbers of children										
under 5	160(45.2)	12.41±5.69			20.78±5.02			31.20±7.62		
above 5	194(54.8)	13.20±5.26	1.36	0.1735	20.45±4.60	0.64	0.5239	32.03±7.04	1.06	0.2909
Health status										
very good	46(13.0)	13.67±6.65			18.85±4.83			31.65±8.61		
good	145(41.0)	13.40±5.01a			20.46±4.85			32.37±7.73		
neutral	119(33.5)	12.77±5.09	3.14	0.0149	21.04±4.66	2.44	0.0467	31.81±6.38	2.10	0.0798
poor	37(10.5)	10.14±5.62a			21.76±4.36			28.54±6.32		
very poor	7(2.0)	11.29±7.89			21.29±5.59			30.57±6.27		

<Table 2> Sexual knowledges, attitudes and educational needs by general characteristics(continued)

(N= 354)

General characteristics	N(%)	knowledge Mean±SD	t or F	p	knowledge Mean±SD	t or F	p	knowledge Mean±SD	t or F	p
Health status of spouse										
very good	30(8.5)	12.87±6.65			17.57±5.06ab			33.50±8.64		
good	77(21.8)	13.36±5.51			19.57±4.43			32.38±8.28		
neutral	72(20.3)	13.86±5.33	2.01	0.0773	21.44±4.38a	4.36	0.0007	31.97±6.75	2.15	0.0595
poor	36(10.2)	13.81±4.32			21.36±3.72			33.25±6.86		
very poor	12(3.4)	11.08±7.24			21.00±6.22			28.17±9.76		
none of the above	127(35.8)	11.83±5.19			21.20±4.97b			30.47±6.30		
Frequency of sexual life										
intermittent	87(24.6)	13.91±5.00			19.16±4.75a			34.22±7.39ab		
none	70(19.8)	12.96±5.36	2.56	0.0788	22.49±4.31ab	9.83	0.0001	30.43±8.08a	7.50	0.0006
none of the above	197(55.6)	12.33±5.65			20.36±4.76b			30.95±6.74b		
Intimacy between spouse										
very good	48(13.6)	15.08±5.57ab			17.54±4.48abc			32.08±8.83		
good	113(31.9)	14.03±5.20c			20.63±4.66a			33.57±7.56a		
neutral	48(13.6)	11.42±4.82a	5.25	0.0001	21.54±3.95b	5.17	0.0001	31.00±6.29	2.91	0.0136
poor	12(3.4)	13.25±3.86			20.75±4.27			30.25±4.90		
very poor	3(0.8)	12.33±3.06			21.33±3.51			33.00±7.55		
none of the above	130(36.7)	11.48±5.60bc			21.32±4.99c			30.17±6.71a		
Sexual desires										
very strong	25(7.1)	12.80±6.39			17.00±4.54abc			32.04±7.61		
strong	42(11.9)	15.45±5.54ab			18.05±4.29de			34.31±8.11ab		
neutral	154(43.5)	13.29±4.95	4.97	0.0007	20.53±4.51adf	12.68	0.0001	32.66±6.91c	5.35	0.0003
poor	90(25.4)	11.71±5.16a			22.78±4.15bef			30.02±6.85a		
very poor	43(12.1)	11.07±6.20b			20.84±5.30c			28.63±7.26bc		

a, b, c, d : Scheffie' test(means with the same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Table 3> The mean scores of attitudes toward sexuality

ITEM	Mean±SD
Aged(65+years of age) people have little interest in sexuality.	2.36±0.99
An aged person who shows sexual interest brings disgrace to himself/herself.	2.55±1.05
Institutions such as nursing homes ought not to encourage or support sexual activity of any sort in its residents.	2.47±1.07
Male and female residents of nursing homes ought to live on separate floors or in separate wings of the nursing home.	2.57±1.14
As one becomes older(say past 65) interest in sexuality inevitably disappears.	2.95±1.09
It is immoral for older persons to engage in recreational sex.	2.54±1.03
I would support sex education courses for aged.	2.18±0.68
Sexual relations outside the context of marriage are always wrong.	3.19±1.20
total	20.60±4.79

4. 대상자의 성에 대한 교육요구

대상자의 성에 대한 교육요구의 정도는 평균 31.65±7.31점(최소 10점- 최대 50점)의 중간이상으로서 성에 대한 교육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정력증진에 도움을 주는 보양 식이에 대해(3.24±1.08)', '늙으면서 겪게 되는 생식기 기능과 관련된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3.23±1.04)', '늙으면서 겪게 되는 생식기 기능의 변화에 대해(3.23±1.00)' 등의 순으로 교육요구가 높았다<Table 4>. 한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 교육요구를 보면 남자노인이 여자노인에 비해(t=3.88, p= .0001),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군에서 사별 또는 기타의 군에 비해(F=7.62, p= .0001), 부

부생활을 가끔 하는 군에서 전혀 하지 않거나 해당 사항이 없는 군에 비해(F=7.50, p= .0006), 배우자와의 금슬이 좋은 군에서 해당사항이 없는 군에 비해(F=2.91, p= .0136), 성생활에 대한 욕구가 비교적 강한 군이 거의 없는 군과 전혀 없는 군, 그저 그런 군이 전혀 없는 군에 비해(F=5.35, p= .0003) 더 성에 대한 교육요구가 높았다. 대상자의 종교에 따라서도 교육요구에 차이를 보였으나(F=2.92, p= .0136) 다중비교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2>.

5.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요구간의 관계

대상자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교육요구간의 관계

<Table 4> The mean scores of educational needs for sexuality

ITEM	Mean±SD
Change of reproductive function because of aging	3.23±1.00
Psychological changes related to reproductive function due to aging	3.23±1.04
Influence of currently taking medicines on sexuality	3.19±1.04
influence of present illness on sexual activity	3.19±0.98
Influence of physical changes from aging on sexuality	3.21±0.97
Influence of bereavement on sexual life	3.21±0.97
Counselling of sexuality	3.14±0.96
Medicine or alternative to aid sexuality	3.05±1.04
Treatment method for sexual dysfunction	3.18±1.01
Food to aid virility	3.24±1.08
total	31.65±7.31

<Table 5> The correlation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educational needs for sexuality

	Knowledge	Attitudes	Educational needs
Knowledge		r=-0.25 (p=0.0001)	r=0.24 (p=0.0001)
Attitudes			r=-0.23 (p=0.0001)
Educational needs			

를 보면 지식과 태도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r = -.25, p = .0001$), 지식과 교육요구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r = .24, p = .0001$), 태도와 교육요구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r = -.23, p = .0001$) 이는 매우 약한 상관관계였다. 즉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성에 대한 태도는 허용적 이었고, 교육요구가 더 높았으며, 또한 성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교육요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IV. 논 의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1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노인의 성생활 인식도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조사한 Lee(1999)의 연구에 의하면 19.5%가 현재도 성생활을 지속하고 있으며 빈도는 한 달에 한번이 가장 많았다. 또한 남자노인의 84%에서 예쁜 여자를 보면 여전히 좋고 흥분된다고 하였으며 현재 성생활을 하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아 노인의 성생활이 삶의 만족도에 다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성에 대한 별반 지식이 없으며 태도도 모호한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에 참여한 354명의 노인들의 성에 대한 지식수준은 평균 12.84±5.46점(29점 만점)으로 중간 이하였으며, 성에 대한 태도는 평균 20.60±4.79점(범위 8-40점)의 허용도 부정도 아닌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Quinn Krach와 Van Hoozer(1988)가 4년제 간호대학에 재학중인 여학생 158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조사에서 지식정도 17±2.66점(30점 만점), 태도 52.33±5.93점(범위 15- 75점)과 Kim(2000)이 간호사 442명을 대상으로 노인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측정된 결과 지식정도 17±5.1점(30점 만점), 태도 35.97±6.5점(범위 15- 75점) 보다도 낮은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이 자신의 성에 대해 제 3자보다도 더 무지하며 이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물론 간호대학생과 간호사는 현재 또는 미래의 보건의료 종사자라는 점에서 다소 지식이 높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어 노인의 가족이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해 볼 필요도 있겠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지식수준이 높았으며, 성 태도는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더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ee(2000)가

노인의 성생활 인식도를 측정한 연구에서 남자노인이 여자노인보다 성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와 Lee(1997)의 연구에서 노인의 성 역할 태도가 다소 전통적인 경향을 보였고, 여자노인이 남자노인보다 더 근대적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이 결과는 60대 이후의 남녀노인의 학력수준과도 관련이 있으며 예로부터 남자의 성생활에 대한 자유는 사회적으로 목인이 되어왔으나 여자의 경우 엄격히 통제되어온 사회적 편견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한편 Spector와 Fremeth(1996)의 연구에서는 남녀간의 성 태도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상자가 장기요양원의 거주자이며,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점에서 문화와 종교 및 민족적인 특성 간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성 태도에 대한 횡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비교, 연구 해볼 필요가 있겠다.

노인의 성에 대한 교육요구 정도는 평균 31.65±7.31점으로 중간이상의 관심을 보였는데, 이는 Shin(1996)의 연구에서 이성에 대한 관심도가 70대를 넘어서도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사료된다. 성에 대한 무지와 관련교육의 부재로 실버에이즈가 증가하고 있다는 최근의 보도(The Chung Ang Post, 2002. 7. 22)를 보더라도 교육의 중요성이 절실히 짐작할 수 있겠다.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노인의 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이들의 지식점수가 높아졌으며, 보다 허용적인 성 태도를 갖게 되었다는 Oh(1998)의 연구처럼 노인들에게도 자신의 성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과 인식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그들의 성적 능력을 증진시키도록 돕는 기회가 되며, 따라서 그들이 건강하다는 보편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여 노년기의 질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성교육 요구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노인을 돌보는 간호사들이 간호사정 시 필히 염두에 두어야 할 내용이라고 본다.

한편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간의 관계를 보면, 지식과 태도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성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성에 대한 태도는 허용적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Quinn Krach와 Van Hoozer(1988), Kim(2000)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White(1982)는 노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과 노인이 있는 가족들을 대상으로 노인 성교육을 실시하기 전후에 노인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측정하였는데, 교육을 받은 실험군이 사후 노인의 성에 대한 지식 점수가 성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성에 대한 태도도 허용적

이라는 결과를 보인 연구로 미루어 지식과 태도와의 관계를 가늠할 수 있겠다. 또한 노인의 성에 대한 지식과 교육요구 간에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지식이 높을수록 교육요구가 더 높았고, 태도와 교육요구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 성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 일수록 교육요구가 더 높았다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맥락에서 볼 때 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는 유교문화가 아직도 강한 일부 소도시의 한정된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노인대학이나 노인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노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서울 등 대 도시에 거주하거나 또는 대다수의 재가노인 과 표현능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 연구결과를 확대 적용 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 중 주목할 만한 사항은 남자노인이나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 그리고 배우자와의 금슬이 좋으며 여전히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에서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성 지식이 높고, 태도도 허용적이며, 교육요구도 높아 건강상태와 부부의 친밀성 그리고 지속적인 부부생활이 노인의 건강유지에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광의의 차원에서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노인에게 적합한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야 한다는 적용성을 암시하고 있는데 노인의 성에 대한 증가된 지식은 노인의 성행위와 태도에 대한 좀 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을 돌보는 간호사들은 노인들의 성적 관심과 행동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노인의 성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노인의 성을 금기시하는 분위기를 쇠신하도록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인의 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노인의 성을 이해시키고 건전한 노인의 성 활동을 지원토록 함으로써 노년기의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및 교육요구를 알아 보기 위해 2002년 2월부터 4월까지 충청남도 서산시에 살고 있는 노인 35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White(1982)에 의해 개발한 것을 Quinn Krach와 Van Hoozer(1988)가 수정한 노인의 성 관련 지식과 태도 측정도구와 본 연구자들이 개발한

성에 대한 교육요구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t-test, F-test, Scheffe' test, Pearson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성에 대한 지식수준은 29점 만점에 평균 12.84±5.46점으로 중간 이하였으며, 70세 미만, 남자노인, 유 배우자, 건강이 좋은 군, 배우자와의 금슬이 좋은 군에서 지식수준이 더 높았다.
2. 노인의 성에 대한 태도는 40점 만점에 평균 20.60±4.79점으로 허용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중도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남자노인,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더 좋은 군,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군, 배우자와의 금슬이 좋은 군, 성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한 군에서 더 허용적이었다.
3. 노인의 성에 대한 교육요구는 50점 만점에 평균 31.65±7.31점으로 중간이상이었으며, 남자노인, 유 배우자,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군, 배우자와의 금슬이 좋은 군, 성생활에 대한 욕구가 강한 군에서 더 높았다.
4. 노인의 성에 대해서는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허용적인 태도($r=-.25$, $p= .0001$)와 교육요구가 높았고($r=.24$, $p= .0001$),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일수록 교육요구가 높았으나($r=-.23$, $p= .0001$) 이는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겠다. 노인들은 성에 대해 지식수준이 낮고, 허용도 부정도 아닌 중도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성에 관한 교육적인 요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자노인이나 건강상태가 좋은 노인 그리고 배우자와의 금슬이 좋으며 여전히 부부생활을 하고 있는 노인들에서 성 지식이 높고, 태도도 허용적이며, 교육요구도 높아 성생활의 지속이 노인의 건강유지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추후 건강한 노인부부를 위한 성생활 증진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으로 노년기의 삶의 질을 보다 풍요롭게 할 필요성이 있으며 아울러 여자노인이나 건강이 좋지 않은 노인 그리고 사별한 노인들을 위한 대안적인 성생활 증진 프로그램도 개발·적용할 것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arber, H. R. K. (1996). Sexuality and the art

- of arousal in the geriatric woman. *Clin Obste and Gynecol* 39(4), 970-973.
- Drench, M. E., & Losse R. H. (1996). Sexuality and sexual capacities of elderly people. *Rehab Nurs*, 21(3), 118-123.
- Falk, G. (1980). Sexuality and the aged. *Nurs Outlook*, 28(1), 51-55.
- Hillman, J. L., & Sriker, G. (1994), A linkage of knowledge and attitudes toward elderly sexuality: Not necessarily a uniform relationship, *The Gerontol Soci Ame*, 34(2), 256-260.
- Johnson, B. (1997). Older adult's suggestion for health care providers regarding discussion of sex. *Geriatr Nurs*, 18(2), 65-66.
- Lee, C. E. (2000).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sex life and life satisfaction in elder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of Korea, Seoul.
- Lee, S. S. (1997). A Study to investigate the relational between elderly person's sex-role attitude and their marital adjustment, *J Korea Gerontol Soci*, 17(2), 70-85.
- Kim, N. C. (2000). Nurse's attitudes and knowledges about sexuality of the aged, *J Korean Gerontol Nurs*, 2(2), 195-203.
-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2). *Statements of health and welfare..* Seoul, Korea.
- Oh, J. J., & Sin, E. Y. (1998).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the staffs in a home for the aged about the sexual desires of the aged. *J Korea Gerontol Soci* 18(2), 97-109.
- Oh, J. J. (1998). A study on the effect of sexual education to nursing student knowledge and attitude to the sex of the aged. *J Korean Commu Nurs* 9(1), 64-71.
- Shin, S. R. (1996). A study on Sexuality in Elderly, *Sahmyook University Journal*, 28, 137-143.
- Spector, I. P., & Fremeth, S. M. (1996), Sexual behavior and attitudes of geriatric residents in long-term care facilities, *J Sex & Marital Ther*, 22(4), 235-245.
- Steinke, E. E. (1997). Sexuality in aging: Impliaction for nursing facility staff. *The J Cont Edu Nurs*, 28(2), 619- 630.
- The Chung Ang Post (2002). Increasing silver AIDS, July, 22th.
- Tunstall, P. & Henry, M. E. (1996). Approaches to resident sexuality. *J Gerontol Nurs* 22(6), 37-42.
- White, C. B. (1982), A scale for the assessment of attitudes and knowledge regarding sexuality in the aged. *Arch Sexual Behav* 11(6), 491-502.

- Abstract -

Knowledge, Attitudes, and Educational Needs for Sexuality of the Elderly

Han, Hye-Ja* · Kim, Nam-Cho** · Chi, Sung-Ai***

Purpose: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attitudes, and educational needs for sexuality of the elderly. Method: This was a descriptive study, in which data were collected from February to April 2002 from 354 elderly who were residing in Chung-Chung province. Result: 1. The level of knowledge regarding sexuality was below average. 2. The level of the attitudes toward sexuality of the elderly was neither positive nor negative. 3. The educational needs of the elderly were above average. 4. Higher level of knowledge on sexualit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ore positive attitudes and education needs for sexuality, and more positive attitudes toward sexuality was

* Assistant Professor, Shin Sung College of Nursing

**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The Catholic University

*** Professor, Dep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more educational needs for sexuality. Conclusion: Particularly men, with good health, and those who were in intimate relationships with their spouses and still engaged with active sexual life showed somewhat higher level of knowledge and positive attitudes as well as higher educational needs. Therefore, further development and applying of sexuality promotion programs for healthy elder

couple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ture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elder population. In addition, it is also suggested to develop an alternative intervention program on sexuality for elderly who are women, those with meager health, and the bereaved.

Key words : Aged, Sexuality, Knowledge,
Attitude, Educational Need